

# 대 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I. 중남미 지역의 무역동향 .....	2
II.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및 정책 대응 .....	4
III. 한-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현황 .....	6
IV.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	9

확인 : 팀	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작성 : 조 사 역	조현수 (6255-5712) hsc@koreaexim.go.kr
	조 사 역 장은진 (6255-5716) eunjin@koreaexim.go.kr



## I. 중남미 지역의 무역동향

### (1) 개요

#### □ 거대신흥시장인 중남미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교역지역으로 부상

- 전통적으로 자원부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고(高)유가세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옴.

※ 1990~2014년 세계무역성장률 81%, 중남미무역성장률 89%  
 중남미무역액/세계전체무역액: 3.8%('90년) → 5.8%('14년)

- 그러나,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 □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흑자 변동성 확대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무역흑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중남미 무역부진에 따라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이 일제히 감소함.

※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액 변화: 88억 달러('02년) → 401억 달러('11년)  
 2014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472억 달러) 중 중남미 비중: 37%(176억 달러)  
 2015년 10월 기준 對 중남미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율: 전년 대비 -11%

- 최근 무역부진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주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

### (2) 중남미 무역현황

#### □ 수출입 가격하락으로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 무역 감소세 전망

- 2015년 중남미 지역의 對 세계 수출액은 경제대공황(1931~33년 평균 23%감소) 이후 최대치인 14%, 수입액은 10%의 감소폭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13-15년 수출물량의 증가(1%)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출가격 하락(-15%)에 따라 수출액이 최대 낙폭을 시현하였고, 동기간 수입액은 수입 가격(-8.5%) 및 수입량(-1.5%)의 동반 하락에 따라 감소함.

- 특히,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수출가격 하락폭이 -20%대를 기록하면서 중남미 전체 수출규모 감소폭(-14%)보다 큰 수출규모 감소폭을 보임.

※ 원자재 가격하락률: 천연가스(-37%), 석유(-48%), 페로니켈(-30%), 설탕(-27%)

- 반면,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지역은 수출물량 증가가 가격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수출액 감소폭이 낮은 수준(-3.7%)을 보임.

**<2015년 중남미 지역별 가격 및 수량 효과에 따른 수출입 변화>**

(단위: %)

	수 출			수 입		
	가격	수량	수출액	가격	수량	수입액
중남미 지역	-15.0	1.0	-14.0	-8.5	-1.5	-10.0
남미	-20.4	-0.6	-21.0	-9.7	-7.0	-16.7
남미공동시장	-20.5	0.0	-20.5	-9.8	-8.9	-18.8
안데스공동시장	-24.0	-0.6	-24.6	-8.9	-3.8	-21.8
중미지역	-7.2	3.5	-3.7	-10.0	6.6	-3.4
카리브공동시장	-20.4	-1.5	-21.9	-14.6	2.0	-12.6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 **역외국가와의 교역보다 역내국가 간 교역이 더 큰 폭으로 하락**

- 2015년 중남미 지역의 역외 수출 감소폭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역내 수출 감소폭은 이보다 큰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2-14년 세계수출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6%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해 세계무역의 성장 모멘텀을 상실함.
- 특히, 전세계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중남미 국가의 주요 교역국인 EU, 중국, 미국의 전년 대비 수출 및 수입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교역량 감소세가 확대됨.

**<2014-15년 중남미 對 주요 교역국 수출·수입액 변화>**

(단위: %)

	수출 감소율		수입 감소율	
	2014	2015	2014	2015
세계	-3	-14	-1	-10
EU	-6	-17	-5	-14
중국	-9	-16	5	-2
미국	3	-10	1	-9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 역내 국가 간 무역 현황을 보면, 남미지역 역내 교역은 역외교역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 반면, 중미지역 역내 교역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2015년 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시장의 역내 교역량은 각각 전년 대비 23%, 20%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상호교역량은 중간재, 내구소비재 무역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5%의 감소율을 보임.
- 반면, 중미국가의 경우 중미통합체제 및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교역량이 2%의 상승세를 보임.

<남미지역 vs. 중미지역 역내외 교역 현황>



출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 II.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및 정책대응

### (1) 중남미 무역부진 원인

#### □ 원자재 편중도 및 품목 집중도가 높은 수출구조

- 중남미 지역의 총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감소폭이 확대됨.
-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원자재 수출비중은 60%(멕시코 제외시 77%), 석유·가스 비중은 18.2%로 원자재 편중도가 매우 높음.
- 국제유가는 2014년 7월 1배럴당 100달러에서 2015년 10월말 46.6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 7월 기준 철광석 가격은 전년 7월 대비 46.3%, 구리는 22.3%, 대두와 커피는 19.6% 하락하였음.
- 또한, 중남미 국가 수출구조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이 제한적이고 중요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주요 원유 수출국인 에콰도르는 상위 4개 품목이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도 10개 이하의 품목이 75%를 차지함.

## □ 주요 무역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은 브라질, 칠레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지역 전체 기준 EU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중남미의 수출감소폭이 커짐.

\* 중남미 對 중국 수출비중: 1%('00)→10%('14), 수입비중: 2%('00)→17%('14)

- 중국의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건설업 위축으로 구리, 철광석 등 생산자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4년 중순 이후 對중국 수출 감소\*가 가시화됨.

\* 브라질의 對중국 수출: -11.8%('14)→-28.1%('15.5월)

멕시코의 對중국 수출: -7.8%('14)→-23.6%('15.5월)

아르헨티나 對중국 수출: -19.2%('14)→-6.7%('15.5월)

## (2) 중남미 무역촉진 정책 대응

### □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해 수출다변화 실시

- 최근 10여 년간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원자재 중심의 1차 산업에 집중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심화로 인해 제조업 등 비전통적 수출부문 진출 필요성이 증대함.
- 이에 따라, 개별국은 장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구조 중 원자재 비중 축소를 추진 중임.
-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실제 멕시코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폭이 타 중남미 국가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임.

### □ 중국의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인프라 갭 축소 및 기술투자 추진

- 2015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CELAC\* 포럼 장관급 회의에서 2015-19 중국-CELAC 협력 계획이 발표됨.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 포괄적 경제협력을 통해 10년내 중-CELAC 간 무역규모를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중남미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프라 갭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투자 등의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 Ⅲ. 한-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현황

#### □ 중남미와 우리나라간 교역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 돌파 이후 2011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인 401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여 2015년 10월 기준 26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를 기록함.
- 수출액 감소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지역 전반적으로는 가격 하락효과와 물량 감소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對 중남미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천톤,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5*	26,119	-11.4	8,834	0.6	13,287	-11.8	12,833
2014	35,898	-1.2	10,688	-4.1	18,294	-0.4	17,603
2013	36,328	-1.1	11,141	-4.8	18,364	-6.9	17,964
2012	36,747	-8.4	11,706	0.2	19,723	-2.2	17,024
2011	40,131	10.9	11,684	-4.2	20,165	37.7	19,966
2010	36,187	35.2	12,196	32.2	14,645	25.7	21,543
2009	26,764	-19.5	9,228	-8.1	11,648	-15.3	15,116
2008	33,267	29.0	10,041	9.7	13,756	21.5	19,512
2007	25,781	25.2	9,151	31.9	11,324	16.4	14,457
2006	20,591	37.4	6,938	15.0	9,732	38.7	10,858
2005	14,987	29.6	6,031	32.8	7,017	5.5	7,970

\* 2015년 10월 누적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브라질)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4% 감소한 49.3억 달러를 기록

-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13.0%), 무선통신기기(-20.1%), 반도체(-46.7%), 평판디스플레이(-47.3%), 자동차(-52.9%)가 일제히 감소함.
-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은 브라질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급감하였으며, 브라질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 감소 및 브라질 헤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음.

<한·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9,688	8,992	4,938	-35.4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 입	5,573	4,907	3,193	-20.0	철광, 식물성물질, 곡실류
합 계	15,261	13,899	8,131	-30.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멕시코)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한 96.3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및 선박해양 구조물 부품의 높은 수출 증가세(각 9.6%, 9.6%)를 보였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와 4위 수출품목인 영상기기 수출액은 각각 14.1%, 10.3% 감소함.
- 멕시코는 201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9위 수출대상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최대 수출국이며, 북미시장의 생산기지인 멕시코의 시장 특성상 소비재보다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2014년 기아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등에 따라 자동차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 생산에 따른 경쟁심화 및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등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한·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9,727	10,846	9,636	10.3	평판디스플레이, 철강관, 자동차부품
수 입	2,301	3,268	2,883	5.0	원유, 기타금속광물, 석유제품
합 계	12,028	14,114	12,519	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콜롬비아)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1% 감소한 9.3억 달러를 기록

- 상위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23.0%), 자동차부품(-20.0%), 합성수지(-26.5%)가 감소세를 보였음.
-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경제성장세 악화에 따라 최근 수출이 감소함.

<한·콜롬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1,342	1,509	937	-27.1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207	608	280	-31.7	원유, 합금철 선철 및 고철, 기호식품
합 계	1,549	2,117	1,217	-28.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페루) 2015년 1~10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한 10.2억 달러를 기록

- 2015년 10월 기준 상위 5개 수출품목인 자동차(-11.1%), 합성수지(-21.4%), 무선통신기기(93.6%), 정밀화학원료(22.5%), 항공기 및 부품(-55.5%) 중 3개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이후로 두 번째 FTA 체결국(2011년 발효)으로 사업 참여기업과의 경영안정계약 체결을 통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영위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15. 10월 타결) 등 다자간무역협정도 적극 추진 중

<한·페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10	증감률	주요 품목
수 출	1,440	1,392	1,020	-9.3	자동차, 합성수지, 항공기 및 부품
수 입	1,983	1,434	953	-18.6	동광,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합 계	3,423	2,826	1,973	-14.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IV.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 □ 중남미지역의 정책 대응에 따른 수출전략 수립 필요

-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로, 이는 멕시코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인프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대미수출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서 기인함.

\* 멕시코 수출 증가율: 10.3% ('15. 10월 기준)

- 멕시코 교역 구조를 참고하여, 타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품목 및 산업 정책의 변화, 대외 협력 강화 등 수출촉진 정책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되는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함.

### □ FTA 적극 체결로 수출증대 추진 필요

-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국가는 칠레('04. 4월), 페루('11. 8월) 2개국에 불과하고, 서명이 완료되어 발효 예정인 국가는 콜롬비아가 유일함.

- 중남미 정부의 수입 억제, 과세 부과, 복잡한 통관절차 등 보호무역 정책은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제조업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보면 FTA를 체결한 페루의 경우 1.55%에 불과한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각각 10.8%, 13.0%의 높은 관세에 직면함.

<주요 중남미 국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산 업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제조업	10.74%	12.98%	1.55%

자료: IDB(미주개발은행)

- 또한, 직·간접적인 FTA 홍보 및 FT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확대, 산업협력, 투자교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저유가를 기회로 중남미 해외사업 참여 여건 마련

- 201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 투자액(FDI)은 1,590억 달러로 전세계 FDI의 13%를 차지하였고, 이 중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중점 투자대상 분야인 원유 등 천연자원 부문은 축소됨.

- 2009~13년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의 총 FDI의 24%가 천연자원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원유공급 과잉 등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7%로 축소되었음.
- 우리나라의 2014년 중남미 투자액은 42억 달러에 불과하고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27%)되어 있는 상황이나, 저유가 환경을 해외 우량 자산 확보 기회로 삼아 중남미 해외사업에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 10위 석유생산국인 멕시코는 2015년 7월 및 9월 두차례에 걸쳐 1, 2차 입찰을 진행하는 등 1938년 국유화 조치 이후 최초로 민간에 광구를 매각하고 있어,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내년도(2016.4월~2017.3월) 석유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48억 엔(6.2억 달러)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산 매입과 지분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자주개발률을 4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함.

#### □ 인프라개발 사업 수주노력 강화 필요

-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반면, 인프라 수준이 미흡한 수준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 잠재력이 높음.
- 브라질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향후 인프라 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투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장려 방안이 포함됨.
- 특히, 브라질과 페루의 한국산 수입품 화물운송료는 관세비용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 인프라 부문 투자 진출과 더불어 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확대를 촉진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PPP 방식을 적용한 우리나라 성공사례를 사업 모델화 하여 각국의 투자진흥청 등에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투자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국가 앞 PPP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추후 우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참여자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참 고 문 헌 >

한국수출입은행, 석유·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5년 3/4분기 동향 및 전망, 2015. 11

한국수출입은행, 페루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5. 6

EC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2015. The regional trade crisis: assessment and outlook*, 2015. 10

ECLAC,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5*, 2015. 6

IDB, *The Trade and Integration Monitor 2015. Double Dip: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acing the Contraction of World Trade*, 2015. 10

IDB, *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triving for a Diverse and Dynamic Relationship*, 2015. 3